

직관의 이해에 대한 확장적 연구: 기독교 상담적 접근으로

배 시 은* 안 윤 경** 김 용 태 ***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직관의 개념을 기독교 상담학적으로 확장하여 이해하기 위한 개념적 근거들을 고찰하였다. 직관은 인간의 인식과정에서 필연적이며, 인식의 큰 범위 안에서 직관은 다양한 개념적 요소들을 갖는다. 그러나 기존의 심리학과 기독교상담학에서 직관에 대한 연구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에 직관을 이해하기 위한 확장적 개념 고찰 연구가 필요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심리학에서 직관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연구가 없었으며, 직관에 관한 기독교 상담학적 연구도 찾기 어려웠다. 둘째, 직관의 인식은 철학적으로 인식의 과정이고, 심리학적으로 감각정보를 처리하는 지각에 가까운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기독교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자 하는 영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직관의 원천은 무의식을 통한 인간의 초월성과 지향성이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려는 기독교 영성의 개념으로 확장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상담에서 직관은 기존의 직관의 개념인 심리, 사회적 개념에 더하여 영적 측면을 확장한 넓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기에 개념적 용어 구분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는 심리학의 직관을 확장하여 기독교 상담의 계시, 영성을 개념적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중심단어 : 직관, 인식, 무의식, 계시, 기독교 영성

• 논문 투고일: 2015년 10월 06일

• 논문 수정일: 2015년 11월 10일

• 게재 확정일: 2015년 11월 13일

* 햇빛트리니티 신학대학원대학교

** 햇빛트리니티 신학대학원대학교

*** 햇빛트리니티 신학대학원대학교

I. 여는 글

직관은 인식의 능력이나 작용으로 여겨지며, 개인적 정신능력이나 판단에 기초하기 때문에 비합리적이지만 사유가 단절된 정신능력이자, 사유가 의존하는 최고의 인식능력이다.¹⁾ 철학에서 직관은 다양하게 언급되어지지만, Kant의 인식론에서 보다 더 자세하게 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Kant의 형이상학적인 인식론은 지각과 이성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의식적 수준에서 선형적이며, 종합 판단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²⁾ 심리학에서 Jung에 의한 직관은 “perception via the unconscious”³⁾으로, 무의식을 알아가기 위한 중요한 자원이 된다. Jung에 의하면 직관은 인간이 마치 오감을 느끼듯 감정의 동요를 지각하는 자연스러운 능력으로 생득적이며 직접적으로 주어진 경험이다. 따라서 무이성적, 무비판적이며 직관을 갖는 사람조차 직관이 어디에서 왔으며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못한다.⁴⁾ 이러한 직관은 통찰과 비슷한 개념으로 쓰인다. 그러나 통찰은 “전에는 의식하지 못했던 병적 내용과 갈등에 관해서 얻어진 주관적이고 경험적 깨달음”⁵⁾으로 의식하지 못했지만 이미 어렵듯이 알고 있는 자신 안의 지각들을 해석으로 재구조화한다는 의미로 쓰이는 반면, 직관은 자신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그냥 아는 느낌으로 의미되기 때문에 각 개념은 다르게 사용되어진다.

-
- 1) 서울대학교 교육 연구소, 『교육학용어사전』(서울: 하우동설, 1994), 663-664.
 - 2) R. Ludwig, *Kant für Anfänger—die Kritik der reinen Vernunft*, 박중목 역, 『쉽게 읽는 순수이성비판』(서울: 이학사, 1996), 50-65.
 - 3) C. G. Jung, *Psychological Typ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6), 538.
 - 4) C. S. Hall & J. Nordby, *A Printer of Jungian Psychology*, 최현 역, 『융심리학 입문』(서울: 범우사, 1999), 131-132.
 - 5) B. E. Moore & B. D. Fine, *Psychoanalytic Terms and Concept*, 황익근 역 『정신분석용어 해설집』(서울: 하나의학사, 1993), 94-95.

앞서 소개된 직관의 개념들을 보면 지각, 종합 판단적 현상, 인지의 재구조화 등으로 표현되지만 인식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직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식에 대한 종합적 이해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인식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에 대한 직관의 원천에 대한 언급이 무의식, 의식, 선형적 수준이라는 단어로 제각각 표현된다. Jung의 직관은 무의식으로부터 온다고 보는데, 몸 안의 무엇인가가 인간에게 새로운 성찰을 주고 인식을 준다는 의미로서 물질에 정신이 담겨있다는 결론으로 이끌어 유훈론적 사고에 충동을 일으킨다. 따라서 최근 심리학에서도 영의 영역을 전제로 하거나, 마음의 한 결로서의 영성을 인식하는 움직임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더욱이 기독교에서 직관의 이해를 위해서는 영성이 배제될 수 없다. 직관은 기독교상담에서 내담자와 상담자 모두에게 비언어적, 언어적으로 사용되어지며, 기독교상담자의 통합적 입장에 따라 사용되는 심리학적 요소와 전문적 기술들이 다르게 사용되어질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기도, 성경을 통한 계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상담에서 직관, 통찰로 나타날 수 있다. 기독교 상담에서의 직관은 자신 내면의 인식으로부터 오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기 이전 인간의 내면에서 스스로 새로움을 만들어 낼 수 없고 외부에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새로움이 생겨난다고 본다. 즉, 무의식과 직관의 개념이 하나님의 존재와 계시의 개념과 연결되어 더 확장되어 사용된다. 따라서 기독교상담자는 자신 안에 일어나는 마음을 직관,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신학에서는 “드러남”의 뜻을 지닌 계시라는 개념으로 사용되어지며, 기독교상담에서는 “물질에 의존하지 않는 정신적 속성과 신령한 품성”⁶⁾인 영성이란 이름으로 사용된다. 기독교의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중심이 되며, 계시는 “어둠 속에 빛이 비치는 것”⁷⁾과

6) 김상인, “기독교 상담에서의 영성”, 성결심리상담소, 「성결심리상담」 제2권(2010): 70.
 7) 최중호, “그리스도교 신학의 계시에 대한 이해”, 대한기독교서회, 「기독교사상」 제38권 12호(1994): 85.

같이 진리가 드러남을 의미한다. 계시와 영성을 포함한 기독교상담은 일반상담과 기독교 상담이 구분되는 지점이며⁸⁾, 동시에 근거를 설명할 수 없어 논리적으로 설명되어질 수 없다는 비판을 받는 부분이지만, 기독교에서 직관은 계시와 영성을 포함하기 때문에 심리학의 무의식의 개념에 더하는 포괄적이고 확장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연구자들은 앞서 언급한 직관, 계시, 영성이 일반상담과 기독교 상담에서 사용되어지는지, 나아가 어떻게 구분되어 사용되어지는 지 알아보기 위해 선행연구들을 찾아보았다. 그 결과 일반상담에서 직관의 사용에 대한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 기독교 상담에서는 기독교 상담과 영성,⁹⁾ 기독교 상담자의 영성¹⁰⁾에 관한 연구들만 몇몇 존재할 뿐 찾아볼 수 없었다. 이들 연구에서 기독교 상담에서의 영성은 성령의 도움, 상담자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질, 내담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소명 등으로 그 중요성이 언급된다.

한편, 무의식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연구는 무의식과 종교성에 관한 연구,¹¹⁾ 무의식과 기독교 영성¹²⁾에 대한 연구가 몇몇 존재한다. 기독교상담에서의 무의식에 관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기독교 영성

8) 김상인, “기독교 상담에서의 영성”, 70.

9) 이은규, “복음주의 상담을 위한 영성에 대한 고찰”,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1권(2008): 9-36; 권수영, “영성지향성을 가진 기독교(목회)상담”, 연세대학교신학과대학, 「신학논단」72집(2013): 7-36; 이재현, “영성지도와 목회상담, 상담관계를 통한 영적 성숙”, 한국목회상담학회, 「목회와 상담」 제23권(2014): 144.

10) 김미경, “기독교상담자와 영성”,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1권(2008): 165-185; 안경승, “목회상담자의 영성”, 한국복음주의실천신학회, 「복음과 실천신학」 제18권(2008): 309-336.

11) 김성민, “C. G. 융의 상징론: 무의식과 종교상징”, 한국기독교교회,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제85권(2013): 236-261; 김정택, “무의식의 창조성과 종교: 그리스도교를 중심으로”, 한국분석심리학회, 「심성연구」 제26권 1호(2011): 36-66.

12) 심상영,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의 분석심리학적 의미와 무의식을 통한 ‘영혼 돌봄’”, 한국실천신학회, 「신학과 실천」 제19권 상(2009): 261-301; 이영민, “토마스 머튼의 관상적 영성과 융의 집단무의식 비교”(석사학위논문, 서울신학대학교 상담대학원, 2007), 77-85.

과 융의 개성화 이론에 대한 연구,¹³⁾ 분석심리학에 대한 기독교상담적 통합가능성을 시도한 연구,¹⁴⁾ 분석심리학 입장에서 요나 이해를 통한 목회상담 연구¹⁵⁾ 등이 존재하며 분석심리학의 요소들을 통합하고자하는 연구¹⁶⁾가 몇몇 있었다. 이들 연구에서 분석심리학에 나타난 무의식의 상징과 원형, 개성화의 개념은 영적 속성으로서 인간의 초월성을 포함하기 때문에 기독교와 기독교 상담에서 통합의 거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기존의 심리학 개념인 직관에 기독교 영성을 포함한 직관의 확장된 이해를 시도해보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대로 직관은 인간의 삶이라는 큰 맥락으로 인식의 면에서, 그 원천에 있어서 여러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심리학에서 Jung의 직관은 인식의 원천이 무의식에서 왔으며, 인식에 대해 일부만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좁은 의미의 직관의 개념이 일반상담을 비롯한 기독교 상담에서 그대로 사용되어지고 있기에 기독교 상담에서는 기존의 직관 개념을 확장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연구자들은 학문간 개념적 통합을 시도하고자한다. 본 연구가 지니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식의 한 부분으로 직관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직관의 원천이 되는 무의식, 계시, 영성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가 가능하다. 셋째, 직관과 유사개념인 계시, 영성의 개념 정리를 통해 개념의 차이를 밝혀, 직관의 개념 이해를 돕는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상담에서 직관을

13) 박노권, “기독교 영성과 융의 개성화 이론에 대한 비교 연구”, 한국신학연구소, 「신학사상」 제136권(2007): 207-231.

14) 강경미, “분석심리학과 기독교상담의 접목 가능성에 대한 고찰”, 한국복음주의실천신학회, 「복음과 실천신학」 제21권(2010): 39-68.

15) 박종수, “성서적 치유와 목회 상담: 융의 분석심리학 입장에서 본 요나 이해”, 한국기독교학회,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제24권(2002): 7-12.

16) 임경수, “칼 융(Carl Jung)의 개성화(Individuation)과정과 중생(Rebirth)에 대한 상담신학적 담론”, 한국기독교상담심리치료학회,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제11권(2007): 171-196.

심리, 사회, 영적 측면에서 확장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른다. 첫째, 인식으로서 직관의 철학적, 심리학적 이해 둘째, 직관의 원천으로서 무의식과 계시, 영성, 마지막으로, 직관의 기독교 상담학적 이해를 시도해보고자 한다.

II. 펴는 글

1. 인식으로서 직관

1) 인식론적 직관 이해

직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철학의 인식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인식론은 과연 우리의 앎이 어디까지를 알게 되는 것일까 하는 회의적인 면을 포함하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에 대한 비판론으로도 불린다. 인식론에서는 인식의 대상(the knowable)과 인식의 과정(the knowable-process), 인식의 소유(possession)에 대해 이야기한다.¹⁷⁾

그 중 직관을 이해하기 위해선 인식의 대상, 인식의 과정을 이해해볼 수 있다. 인식에 대해 회의를 품은 대표적 철학자 중 Kant는 인식에 대한 새로운 입장을 이야기한다. Kant는 앞 시대에 이성을 중요시한 합리주의와 경험을 중요시한 경험주의를 절충한 경험세계를 초월하여 존재하는 것들에 관한 원인을 연구하는 형이상학을 바탕으로 '순수이성비판'에서 그만의 인식론을 주장하였다. 그는 인간의 인식은 선형적(transcendental)이며 종합적인 판단으로 가능하다고 한다. 선형적이란 의미는 초월적이라는 의미로도 쓰이는데 이는 라틴어 transcedere에서

17) J. M. Spier, *Introduction to Christian Philosophy*, 문석호 역, 『기독교철학개론』(일산: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11), 142.

18) Ludwig, 『쉽게 읽는 순수이성비판』, 50-65.

시작되어 뛰어넘다, 경계를 벗어나다는 뜻으로 사용된다.¹⁸⁾ 즉, Kant에게 있어 이성은 우리 인식을 벗어나는 선험적 인식의 원리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은 순수하게 알기가 불가능하다. Kant는 $7+5=12$ 라는 명제는 $7+5$ 안에 12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선험적이라고 한다.¹⁹⁾ 직관의 도움이 없이 수를 분석하는 것으로는 합산을 알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여기서의 직관은 다음 문단에서 종합적 판단의 인식 과정에서 소개된다). 선험적, 초월적이라는 의미는 Husserl의 현상학에서 사용되어 나타난다. Husserl은 현상학에서 현상학적 환원을 통해 대상을 인식할 때 ‘있는 그 자체’를 인식하게 되는데, 이 때 의식의 수준에서 일어나는 지향성은 선험적 주관성을 띠고 있다고 말한다. 현상학적 환원은 대상에게 경험되어지는 사실 그 자체만을 보면서 나머지를 괄호 안에 넣고 대상을 인식하는 개념으로 대상이 지향하는 의식의 방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변하지 않는 본질로 떠오른다.²⁰⁾ 즉, Kant의 주장에서도 우리가 순수한 이성을 알 수 없듯, Husserl의 있는 그대로의 현상학적 앎에서도 선험적으로 개인의 지향하는 주관성에 따라 알 수밖에 없다.

한편 종합적 판단은 인식의 과정을 나타낸다. Kant에 따르면 인식은 감성과 오성의 조화라고 하는데, 감성은 오늘날의 오감과 같은 지각이며, 오성은 직관의 맹목적 개념 즉 이성을 의미한다.²¹⁾ 이러한 감성적 직관은 시간과 공간을 통해 다양하고 종합적인 인식을 이끌어 낸다. 시공이라는 순수직관은 오성에 의해 개념화되며, 오성은 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추론한다.²²⁾ 즉, 시공이라는 감성의 형식과 범주라는 오성의

19) 최민자, 『동서양 사상에 나타난 인식과 존재의 변증법』(서울: 모시는 사람들, 2013), 659.

20) Iso Kern, *Husserl und Kant*, 배의용 역, 『후설과 칸트: 칸트와 신칸트학파에 대한 후설의 태도에 관한 연구』(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1), 244-303.

21) Ludwig, 『쉽게 읽을 순수이성비판』, 61.

22) 최민자, 『동서양 사상에 나타난 인식과 존재의 변증법』, 659.

형식은 대상을 직관 중에 포함하게 하는 능력을 제공한다. 따라서 Kant는 대상을 보고 인식하는 자체와 대상이 연필이나 컵 등의 개념을 맹목적으로 가질 때 인식한다고 보았다. 이때 인식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²³⁾ 첫째, 다양한 감성은 대상들에 의해 촉발되고 작용된다. 둘째, 감성에서 오성으로 가는 과정에서 대상은 직관을 만들어낸다. 대상을 느낀다. 셋째, 직관을 이용해 오성에서 사고가 일어나 개념을 갖게 된다. 넷째, 대상을 통해 감성에 미치는 결과를 감각, 경험적 직관이라고 말한다. 즉, 사람이 연필을 보고, 길쭉하고 나무 안에 심지가 들어있는 사물로서 손으로 쥐고 쓰는 나무로 이루어진 필기도구라고 느끼는 개념적 사고가 인식이라고 본다. 감성적 직관은 공간과 시간을 통해 다양하고 종합적인 인식을 이끌어 낸다. 이러한 과정을 일컬어 Kant는 “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고,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²⁴⁾라고 말한다. 따라서 감성과 오성이 서로 보완적 역할을 하고 있기에, 지각과 이성을 모두 인식으로 볼 수 있다.

2) 직관의 심리학적 이해

Jung은 Freud의 제자로서 Freud의 인간의 정신구조와 역동개념을 공유하고 있지만, Freud와는 달리 인류 전체의 정신을 대상으로 삼았다. Jung의 분석심리학에서 무의식은 인간 정신의 근원으로 설명된다. 무의식은 개인무의식, 집단무의식으로 나뉘며 꿈에 의한 상징, 자기의 원형, 신화 등으로 자아실현을 위해 탐구해야 할 대상이다. Jung은 직관을 perception via the unconscious²⁵⁾라고 정의하며 직관은 무의식을 알아가기 위한 중요한 자원이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Jung에 의하면 직관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그 스스로 오며, 사람들은 저절로 생기는 착

23) Ludwig, 『쉽게 읽는 순수이성비판』, 72.

24) Ludwig, 『쉽게 읽는 순수이성비판』, 71.

25) Jung, *Psychological Types*, 538.

상을 갖게 되는 것이며 그것도 사람들이 재빨리 준비할 때만 붙잡을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²⁶⁾ 이러한 Jung의 직관의 정의를 이해하기 위해 위에 언급한 세 단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직관을 Unconscious(무의식)의 측면에서 본다면, Jung의 집합적 무의식은 인류 전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버릇을 의미하는데, 이는 인류가 가지고 있는 신화나 동화에 나타나는 꿈과 환상과도 연결될 수 있다. Jung은 이 집합무의식의 원형은 신이요, 종교요, 참 자기라고 설명하며, 집단 무의식을 지나서 그 밑에 있는 밑바탕이 참된 자아요, 하나님이요, 종교라고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직관은 무의식으로부터의 인식이기도 하지만, 집합무의식의 원형을 참된 자아요, 하나님이요 종교로 봄으로써 무의식의 원천이 어디로부터 오는지에 대한 더 큰 개념을 시사한다.

둘째, Perception의 측면에서 직관을 본다면 지각,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 지각은 사전적 의미로 깨친다 이며, 심리학에서 감각을 통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²⁷⁾ 개념으로 물체나 사건에 주의(attention)를 취하는, 마음을 쓰고 전념하는 현상이다.²⁸⁾ 인식은 사전적의미로 깨달아 앎²⁹⁾이며, 철학에서 “사람이 세상에 관한 보편적 지식”³⁰⁾의 개념으로 사용된다. 지각과 인식은 깨닫고 알게 된다는 인지의 측면을 포함하며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되지만 사용되어지는 범주가 다르며, 정보처리 과정으로 본다면 깨치는 상태의 지각과 깨달아서 알게 되는 인식은 그 상태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범주를 벗어나 정보처리의 관점으로 개념들을 나열한다면 감각, 지각, 인식의 순으로 볼 수 있겠다.³¹⁾ 그렇다면 직관은 무

26) Jung, *Psychological Types*, 398-399.

27) 현성용 외, 『현대 심리학 이해』(서울: 학지사, 2014), 104.

28) 김정오, 『마음의 탐구』(서울: 시그마프레스, 2012), 159.

29) 민중서림편집국, 『민중엠텐스 국어사전』(서울: 민중서림), 2058.

30) 김정오, 『마음의 탐구』, 160.

31) 김정오, 『마음의 탐구』, 160.

의식을 알아가는 과정이므로 이때 사용되어지는 Perception은 지각의 개념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Via(통하여)의 측면에서 직관을 본다면 무엇을 통하여 직관이 나타나는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Kant는 인간에게는 감각적 경험들을 넘어선 각자의 정신적 지각을 통해 외부세계와 매개한다고 주장한다.³²⁾ 이때 정신적 지각을 위해 물체가 속한 개념이나 범주를 알지 못한다면, 지각하는 대상의 의미나 기능을 인식할 수 없으며 지각은 무의미해진다.³³⁾ 즉, 자신이 속한 범주를 알고 있는 상태의 지각만이 개인의 참된 지각이 된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직관은 개인의 무의식이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 인식하는 경우에 따라 개인의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이처럼 직관은 자신의 무의식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인식하는 개인의 무의식을 통한 지각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직관의 인식적인 측면을 살펴보았다면 다음에서는 직관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에 대한 직관의 원천에 대해 고찰해보도록 하겠다.

2. 직관의 원천(source)

1) 무의식

(1) 심층심리학의 무의식

Freud는 합리주의 전통을 이어받아 에너지의 원리에 따라 인간의 정신을 설명하려했다. 에너지의 법칙에 의해 인간 안에 사라지지 않는 정신에너지의 근원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 근원을 무의식으로 명명하였다. 따라서 Freud는 무의식을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알 수 없는 영역이라

32) R. Robertson, *Jungian Archetypes*, 이광자 역, 『융의 원형: 융, 괴델, 그리고 원형의 역사』(서울: 집문당, 2012), 55.

33) 김정오, 『마음의 탐구』, 161.

고 말한다.³⁴⁾ 이러한 무의식은 Freud에 의하면 지형학적 구조에서 내면의 깊은 곳에 존재하며 정신의 구조들(원초아, 초자아, 자아)과 함께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인간의 설명할 수 없는 행동의 원인은 무의식으로부터 온다.³⁵⁾ Freud는 무의식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전의식과 의식에서 일어나는 말실수나, 농담을 언급했으며 더 나아가 꿈을 분석함으로써 알아낼 수 있다고 보았다. Freud에게 있어 무의식은 억압된 본능과 갈등이 존재하는 곳으로 부정적이며 위험한 요소로서 여러 가지 정신 병리의 근원이 된다.³⁶⁾

한편, Jung은 Freud의 인간 내면 안에 존재하는 깊은 수준의 정신에 너지로서 무의식의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무의식의 구성요소에 있어서 의견을 달리한다. Jung의 무의식은 정신의 전체성을 실현하는 원동력이 되며, 대립상태의 갈등에서 치유와 창조를 위한 에너지로 이해할 수 있다.³⁷⁾ Jung은 무의식을 개인무의식과 집단무의식으로 구분하였으며, 개인무의식은 페르조나, 그림자로 의식의 수준에서 억압되고 불쾌한 경험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인간의 생후에 경험 된다고 보았다. 집단 무의식은 자기, 아니마 & 아무니스로서 Freud의 원초아와 비슷하게 생득적이며 본능적이라고 보았다. Jung에 의하면 집단무의식은 인류가 공유하는 보편적인 신화, 상징, 종교적 모습으로 드러나는 무의식이다.³⁸⁾

34) S. Freud, *New introductory Lectures on Psycho-Analysis*, 김숙진 역, 『새로운 정신 분석 강의』(서울: 문예출판사, 2004), 128-132.

35) S. Freud, "The Unconscious,"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56, no.3(1922): 291-294.

36) C. S. Hall, *A Primer of Freudian Psychology*, 황문수 역, 『프로이드 입문』(서울: 한림미디어, 1999), 84-89.

37) 김성민, "C. G. 융의 상징론: 무의식과 종교상징", 한국기독교학회,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제85권(2013): 235-261.

38) C. G. Jung, "The Concept of the Collective Unconscious," *Collected Works* 9, no.1(1936): 42; C. G. Jung, "The Archetypes and the Collective Unconscious," *Princeton University Press* no. 20(1981): 42-48.

이러한 집단무의식은 개인이 타고나는 영혼으로, 이미 존재하는 원형으로서 행동의 유형 및 양식으로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³⁹⁾ Jung은 집단 무의식 안에 자기(self)와 의식 수준의 자아(ego)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인격으로 인간의 내면에 존재한다고 보았다.⁴⁰⁾ 따라서 무의식의 자기(self)와 의식의 자아(ego)와 서로 상호작용하는 개인은 자아의 신호를 통해 자아가 자신의 전체성인 대자아(The Self)를 찾으려고 하는 다른 사람과 구별된 자기실현 또는 개성화의 과정을 경험한다.⁴¹⁾

이처럼 Freud와 Jung의 무의식의 이해는 인간의 정신이나 마음속에 무의식이 존재하고 있으며 인간의 정신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병리나 문제로부터 치유되어 성숙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Freud에 이은 Jung의 무의식은 Freud와 다른 개념적 요소를 갖는다. 첫째, Freud의 무의식의 개념인 갈등과 긴장, 억압의 저장소로서, 의식으로 떠오를 수 있도록 없애야하는 부정적 개념에 더해 무의식과 의식의 갈등 속에서 제 3의 방향을 제시하는 창조성을 가진 긍정적 개념이 있다. 둘째, Freud의 생물학적 정신에너지가 Jung의 이론에 와서 확장되어 심리학적 에너지에 더한 영적인 개념이 첨가된 정신의 객체성으로서 “심혼(心魂) Seele”⁴²⁾으로 불리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Freud의 개념에 존재하지 않는 집단무의식의 개념을 갖게 되면서 개인 안에만 존재하던 정신에너지가 인류 사회로 확장되어 공동체의 개념을 소유하게 되었다.

이러한 심층심리학의 무의식을 기독교입장에서 어떻게 볼 수 있을지

39) 김성민, 『분석심리학과 종교』(서울: 학지사, 2014), 73.

40) 이부영, 『분석심리학: C.G. Jung의 인간 심성론』(서울: 일조각, 2007), 175-177.

41) 김원정, “심층 심리학과 기독교 신앙”, 연세대학교신과대학, 『신학논단』 제22권 (1994): 291-312.

42) 이부영, 『분석심리학』, 17.

다음에서 살펴보겠다.

(2) 무의식의 기독교적 이해

Freud의 이론에서 인간의 마음을 무의식이라고 명명하는 심층심리학의 발견은 획기적이고 놀랍지만,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는 합리주의적 전통을 따르는 Freud가 인간정신에 대한 원천으로 무의식을 제시하는 사실은 모순된 결과라 볼 수 있다⁴³⁾ 또한 물리학의 에너지의 법칙을 인간에게 적용하여 인간의 정신에너지가 무의식 안에 존재하고 있다고 가정하는 사실은 물질 안에 정신이 내재해 있다고 보는 셈으로 역시 모순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모순점들은 Jung에게 그대로 전수되었지만 Jung의 무의식의 개념에서 기독교와 연결할 수 있는 지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Jung의 인간 이해와 무의식에 대한 기독교적 고찰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무의식의 원형은 기독교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Freud에게 있어 인간은 본능적이고 억압해야 하는 생물학적 에너지로 움직여지는 존재이다. Jung도 그러한 개념을 이어받지만 인간 안에 존재하는 원형은 인간의 에너지가 인간내면에만 존재하지 않고 외부로 향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한다. 이렇게 외부로 향하게 할 때 상징, 신비, 신화, 종교로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원형은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분석심리학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이러한 원형을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으로 언급한다.⁴⁴⁾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하는 원형은 인간이 자기(The Self)를 찾아 성장하게 하는데, 기독교의 용어로 성화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신의 형상이 인간 안에 존재한다는 의미는 무의식 안에 하나님의 내재성과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초월성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43) Robertson, 『용의 원형: 용, 괴물, 그리고 원형의 역사』, 135-155.

44) 김원재, “심층 심리학과 기독교 신앙”, 연세대학교신과대학, 『신학논단』 제22권 (1994): 291-312; 김정택, “무의식의 창조성과 종교”, 36-66; 김성민, 『분석심리학과 종교』, 164-170.

둘째, Jung은 무의식이 창조와 지혜의 원천 이라고 보았는데 이러한 Jung의 주장은 인간 스스로에게 창조와 지혜가 나온다는 의미로 이해되므로 심리학의 유물적 인간 전제와 충돌되는 자기모순에 빠진다. 기독교에서 지혜와 창조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므로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성령의 작용으로 볼 수 있다. Jung 역시 인간의 심혼에 영이 존재한다고 보았는데, 인간의 육체 안에 존재하는 정신에너지에 추가하여 영성을 포함하므로 Freud에 비해 확장된 인간 이해가 가능해졌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Jung의 영성은 인간 육체 안에 스스로 존재하는 고립된 개념을 갖는다. 기독교에서 인간의 영혼은 몸 안에 거하지만 정신과 같이 몸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물질을 가지고 있지 않고 감각에 의해서 측정될 수 있는 어떤 부분도 갖고 있지 않다.⁴⁵⁾ 또한 기독교의 영성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만 인간이 새롭게 되며 지혜를 얻게 된다고 본다.

셋째, 심층심리학은 무의식을 타인과 구별되는 특징으로 보았다. Freud는 무의식적 동기와 고착, 퇴행을 통해 개인의 성격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Jung은 무의식의 개성화를 통해 개인의 개별화가 진행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심층심리학의 입장은 인간이 자기 스스로만 알고자 하는 영지주의 입장으로 갈 우려가 있으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려는 노력으로도 볼 수 있다.⁴⁶⁾ 또한 무의식에 대한 Freud의 심리내적이고 Jung의 사회적인 관점은 인간에 대한 부분적 이해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기독교의 관점에서 인간은 심층심리학의 심리사회적 관점에 더해 하나님과 관계에서 의존적이고 영적인 부분이 추가되는 심리-사회-영적 존재이다.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기존의 심리학에서 심층심리학의 무의식을

45) A. Ulanov & B. Ulanov, *Religion & Unconscious*, 이재훈 역, 『종교와 무의식』(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6), 99.

46) S. L. Johns & R. E. Butman, *Modern Psychotherapies*, 이관직 역, 『현대심리치료와 기독교적 평가』(서울: 대서, 2009), 182-185.

직관의 근원으로 이해해왔다면 기독교에서는 직관의 근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직관과 유사한 개념인 계시와 영성을 통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2) 계시, 영성

(1) 계시형태로의 직관

기독교는 영/혼/육의 개념을 한꺼번에 가진 전인적인 인간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인간의 영이 성령 혹은 하나님의 계시를 인식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외부의 하나님 혹은 영적인 세계로부터 인식/지각된 직관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것, 또는 갑자기 떠오른 무엇으로 인식된다. 즉, 기독교가 무의식의 근원에 대해 유물론자들과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계시를 인식하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계시는 희랍어 *apokalypto*와 라틴어 *revelatio*로부터 유래되었으며 밝히다, 알리다, 나타내다 라는 의미를 가진 신학적 용어다.⁴⁷⁾ 계시는 전통적으로 환상, 환청 등의 정신적 현상을 통해 예기치 않게 나타나는 특수한 정신적인 현상으로 설명되어 왔으며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하는, 더 정확히는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여겨져 왔다.⁴⁸⁾ 계시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현현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그분의 뜻과 그분 자신을 전달해주시는 것을 뜻한다. 카톨릭의 계시현장은 계시의 본질을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입증하면서 말씀하심’ (*locution Dei attestantis*)이며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만남)’으로 규정하기도 한다.⁴⁹⁾ 즉, 대화라는 매개물을 통해 초월자인 하나님

47) 최종호, “그리스도교 신학의 ‘계시’에 대한 이해”, 대한기독교서회, 「기독교사상」 제38권 12호(1994): 84-104.

48) 김현숙, “계시의 개념과 기독교교육”, 연세대학교신학대학, 「신학논단」 제35권 (2004): 225-250.

49) 장옥중, “계시에 대한 올바른 이해: 사적 계시를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 광주카톨릭대학교대학원, 2010), 7.

인간의 인지 영역을 벗어나 있는 개념을 인간이 인지할 수 있도록 알려 주신다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계시는 프로이드의 통찰이나 칼 융의 직관이 말하는 무의식과의 만남이라는 개념과 연결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성경에서의 계시는 감추어져 있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자기계시를 의미한다.⁵⁰⁾ 성경은 계시를 두 가지로 구분한다. 첫째는 일반 계시 혹은 자연계시라고 불리는 형태이며 이는 창조된 세상을 통해 얻는 하나님에 대한 자연적 지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라뚜렐르). 로마서 1장 20절에서는 이를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창조물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증거를 보여주는 계시형태이기도 하다.⁵¹⁾ 자연계시는 창조된 사물의 질서 안에 새겨져있기 때문에 피조물을 출발점으로 한다는 데서 초자연계시와 구별된다. 따라서 피조물 안에 새겨진 자연계시는 인간이 무의식이라고도 부르는 인간이 인지하지 못하는 인간 내부의 그 무엇과도 연결될 수 있다. 두 번째는 특별계시 혹은 초자연계시라고 설명되며 창조자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직접적인 방법으로 드러내 보이시는 형태이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모세나 다른 선지자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 혹은 꿈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등이 모두 이에 해당된다. 즉,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안에 개입하여 전개하시는 계시의 형태라고 볼 수 있다.⁵²⁾

일반계시와 특별계시의 차이는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개방성으로도 설명될 수 있는데⁵³⁾ 자연계시를 지지한 Augustine과 달리 Karl Barth는

50) 김현숙, “계시의 개념과 기독교교육“, 225-250.

51) 장옥중, “계시에 대한 올바른 이해: 사적 계시를 중심으로”, 9-11.

52) 최중호, “그리스도교 신학의 ‘계시’에 대한 이해”, 84-104.

53) S. Grenz, *Theology for the Community of God*, 신옥수 역, 『조직신학: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한 신학』(일산: 크리스찬다이제스트사, 2009), 209-214.

자연신학을 반대하면서 창조세계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빛나고 있으나, 인간은 이러한 하나님을 바로 인식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⁵⁴⁾ Barth는 계시를 “직관(Institution)을 통한 직접성(Immediacy)을 추구하는 종교의 길”이라고 정의하면서 종교적 직접성을 직접적 관찰, 직접적 전통,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 경험 등으로 표현한다.⁵⁵⁾ 즉 Barth는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인식의 역할을 언급한다. 하나님의 내어주심은 의식, 즉 직관이나 감각이나 개념이전의 대상적인 기호(표징)로 나타난다.⁵⁶⁾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의 개념들, 이미지들, 언어 등의 매개를 통해 인식되며 인간의 경험과 사고의 영역에서 일어난다.⁵⁷⁾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대상이 이를 인식하는 인간의 사고과정, 즉 직관을 통해 인식되는 것이다.

(2) 영성을 통한 직관

직관은 영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조명될 수 있다. 영성은 초월적인 신의 현존을 탐색하는 내적 감수성이라고 정의될 수 있으며 여러 종교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⁵⁸⁾ 영성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 변화되어 왔는데 중세에서는 수도원적 경건, 금욕생활, 개인의 신비체험 등을 포함하는 인간의 영적활동을 의미했다면, 오늘날에는 기독교인의 삶의 전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인적 인간에 관계된 개념으로 이해된다.⁵⁹⁾ 최근에는 종교와 심리학의 공통적 요소를 찾아 적용하려는 시도가 나타나

54) 김명용, “칼바르트의 계시론”,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사상과 문화연구원, 「장신논단」 제25권(2006): 69-96.

55) 김명용, “칼 바르트의 계시론”, 69-96.

56) 박형국, “계시와 현존: 계시의 매개에 대한 바르트의 변증법적 유비론”,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사상과 문화연구원, 「장신논단」 제40권(2011): 209-232.

57) 박형국, “계시와 현존”, 209-232.

58) 이기춘, “기독교의 영성과 상담”, 대한기독교서회, 「기독교 사상」325호(1985): 243-249.

59) 박노권, “기독교 영성과 융의 개성화 이론에 대한 비교 연구”, 한국신학연구소, 「신학사상」 제136권(2007): 207-231.

고 있다. 칼 융의 개성화를 통한 자기실현, 아브라함 마슬로의 절정경험을 통한 자아실현 아사지올리의 보다 높은 자아실현, 제랄드 메이의 명상심리학, 빅터 프랭클의 의미요법, 타트의 초인격 심리학적 접근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⁶⁰⁾ 키에르케고르에 따르면 실존주의 철학을 기반으로 한 실존주의 영성은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보고 영은 스스로 관계하는 자기라고 설명한다. 실존주의 영성에 따르면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관계적 존재이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진정한 자기가 될 수 있다.⁶¹⁾ 톰 머튼은 관상적 영성과 융의 집단 무의식을 비교하면서 기도를 통한 영성과 집단무의식의 자기실현을 통한 개성화 과정 두 군데서 모두 인간 내면의 정화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했다.⁶²⁾ 융은 인격이 갖고 있는 영적인 면과 심리적인 면의 통일성을 강조했으나 융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기독교의 하나님과 구별되며 집단무의식에 존재하는 숨어있는 하나님이다.⁶³⁾

기독교에서는 영성을 가진 존재로서의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부름 받은 존재라고 말한다.⁶⁴⁾ 따라서 기독교 상담은 인간의 심리와 인간관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형성을 삶의 목표로 한다.⁶⁵⁾ 성경은 성령과 인간의 영의 교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⁶⁶⁾ 이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다.⁶⁷⁾ Howard Clinebell은 성장상담이론에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초인간적이고 초월적이기 때문에 보다 거대한 영성적 실체와 관계를 맺

60) 박노권, “기독교 영성과 융의 개성화 이론에 대한 비교 연구”, 207-231.

61) 김상인, “기독교상담에서의 영성”, 65-85.

62) 이영민, “토마스 머튼의 관상적 영성과 융의 집단무의식 비교”(석사학위논문, 서울신학대학교 상담대학원, 2007), 70-75.

63) 박노권, “기독교 영성과 융의 개성화 이론에 대한 비교 연구”, 207-231.

64) 이기춘, “기독교의 영성과 상담”, 243-249.

65) 김상인, “기독교상담에서의 영성”, 66-85.

66) 이기춘, “기독교의 영성과 상담”, 243-249.

67) 박노권, “기독교 영성과 융의 개성화 이론에 대한 비교 연구”, 207-231.

지 않고서는 자기 자신을 실현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⁶⁸⁾ 따라서 Clinebell은 성장상담의 구체적인 목표인 내적 성장, 외적 성장, 관계 생신, 생태계 관계 안에서의 성장, 조직체 및 사회제도의 개선과 이들과의 관계향상, 영적 성장 등으로 꼽는데 이 중에서 영적 성장을 모든 성장의 열쇠로 꼽는다.⁶⁹⁾ 영성적 측면에서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관계를 맺기 위해 필요한 존재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다. 김정오⁷⁰⁾는 Kant의 정신지각을 위한 범주를 언급하며, 마음에 범주가 존재하지 않으면 지각하는 대상의 의미나 기능을 인식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 범주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큰 대상이 기독교의 성령이다. 즉, 성령은 초월적 대상인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하는 매개적인 존재며 성령과 인간의 관계수준에 따라 삶의 다른 차원에서 얼마나 활기차고 사랑이 넘치게 사는가에 영향을 미친다. 권면적 상담을 주장한 Jay Adams는 상담의 주요 요소 중 하나를 성령으로 보고 유능한 상담자는 성령을 떠나서는 상담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⁷¹⁾ 그런 면에서 상담은 본래적으로 목회자나 목회적 상담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볼 수 있다. Lawrence J. Crabb⁷²⁾도 성령의 도우심을 강조하면서 성령을 통해 내담자가 과거의 죄로 인한 죄의식과 억눌림 속에서 해방 받을 수 있으며 성령을 통해 내담자의 그릇된 생각을 찾아 고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영성의 관점에서 보면 직관은 인간의 내부로부터 비롯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유물론적 사고관에서 이해하는 무의식의 발견이 아닌 내주하는 성령으로 인해 혹은 성령을 통한 교통으로 인해 인식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구분될 수 있다.

68) 박은아, “성경적 상담에서의 성령의 역사(work) 연구”(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상담대학원, 2011), 17.

69) 박은아, “성경적 상담에서의 성령의 역사(work) 연구”, 17.

70) 김정오, 『마음의 탐구』, 161.

71) 박은아, “성경적 상담에서의 성령의 역사(work) 연구”, 17.

72) 박은아, “성경적 상담에서의 성령의 역사(work) 연구”, 17.

위에서 논의된 것처럼 직관의 근원은 기존의 정신분석학에서 용이 제시하는 무의식과 기독교에서 제시하는 초월적 존재자로부터의 계시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기독교상담학에서는 직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3. 직관의 기독교상담학적 이해

1) 인식으로서 직관

앞서 직관을 기독교상담학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무의식의 기독교적 이해와 직관의 심리학적 이해와 계시, 영성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를 각각 살펴보았다.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직관을 이해하기 위해선 통합이 필요하다. Jones⁷³⁾는 통합은 이해의 확장으로 볼 수 있으며, 심리학은 과학이기 때문에 사실을, 기독교는 종교로서 가치와 의미를 다루므로 서로 겹쳐지지 않으며, 서로 다른 시각으로 긴장을 유지하며 인간을 상호보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직관에 대한 심리학과 기독교의 통합적 이해는 인간의 정신세계를 보다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직관은 심리학적으로 살펴본바 한 개인에게 자신도 모르게 갑자기 든 생각으로 정의 될 수 있다. 이를 기독교상담학적으로 확장하여 이해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관은 자신도 모르게 나타난다. 이는 무의식, 의식을 포함하며 나아가 영적인 부분으로 까지 이해해볼 수 있다. Jung은 무의식으로부터 오는 지각을 직관으로 보았다. 이는 무의식과 의식의 차원의 상호작용으로 볼 수 있으며, Jung은 인간을 혼과 육, 이분법적으로 이해하고 있기에 인간의 혼과 육의 상호작용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바 심층

73) S. L. Jones, “통합적 관점”, 『심리학과 기독교 어떤 관계인가』(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4), 136.

심리학에 있어 무의식에 대한 변천은 에너지의 저장소에서 집단무의식 안에 존재하는 원형으로 인해 인류 보편적으로 확산된다. 이는 무의식의 이해가 심리의 차원에서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더해 기독교의 입장의 영의 차원으로 확장한다면, 성령의 작용으로 일어나는 직관을 언급할 수 있다. 성령은 인간 안에 거하시며 인간에게 직접 생각이나 마음을 주기도 하며, 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나 의미를 깨닫게 돕기도 한다. 이렇듯 Jung의 직관이 혼과 육의 상호작용만 언급했다면, 기독교 입장에서 직관은 영, 혼, 육의 상호작용으로 보다 포괄적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직관은 이성적 판단을 통해 지각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통해서 지각되며 갑자기 나타난다.⁷⁴⁾ 갑자기라는 단어는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계획할 수 없는 예측가능하지 않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직관이 예측이 가능하지 않은 신비적 영역에 속해있다는 것은 직관이 결정론적 세계관과는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갑자기 다가오는 직관은 인간 내부의 요소만이 아닌 여러 요소를 함께 포함하고 있다. 직관은 자신의 내부에서 떠오른 의식과의 접촉일 수도 있으나, 다른 사람 혹은 외부요인으로부터 지각된 예기치 못한 요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영적인 세계에서 나타난 계시를 인식하면서 나타날 수도 있다. 즉, 직관이라는 지각이 인간내부에서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직관의 근원이 되는 요소는 인간 내부에만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심리학에서는 직관의 개념을 인간의 무의식 혹은 집단무의식으로부터의 지각이라고 한정지음으로써 직관의 범위를 축소시키고 심리학 외의 요소들을 배제시켰다. 철학자들은 이러한 요소에 대해 선형이라는 개념을 가져옴으로써 인간의 초월성을 언급하며 인식의 범위를 넓히려고 시도했으나, 여전

74) 권용근, “칼 융(C.G. Jung)의 정신유형론에서 본 영성유형 분석”, 한국기독교교육학회, 『기독교교육논총』 제26권(2011): 57-91.

히 인간이 육적, 혼적, 영적으로 인지하고 소통할 수 있다는 부분을 고려할 때 직관의 범위를 확장시키는데 실패했다. 기독교적 직관은 인간이 육적, 혼적, 영적 요소를 포함한 전인적인 인간이라는 것을 전제로 함으로써 인간의 인식의 범위를 가장 넓은 범위에서 수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직관은 한 개인에게 든 생각으로 지각, 인식적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심리학에서 지각은 인식의 전 단계에서 집중하고 주의를 기울일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자신이 속한 범주의 이해가 있을 때 참된 지각이 일어난다. 이는 인간의 범주가 혼, 육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인간 내면에서부터 스스로 깨우칠 수 있는 능력이 존재함을 의미하므로 지각, 인식의 인지적 현상을 이해함에 있어 혼과 육의 범주에서 정보 상호 교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Jung은 집단무의식의 원형으로 인류 보편적 경험이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어 인류 보편적 지각과 인식으로 인한 종교적이고 신화적인 상징적 행위를 가져온다고 보았다. 철학에서도 Kant는 인식의 선형성을 언급하며, 인간의 경계를 넘어서는 인식이 존재함을 언급하였으며, Husserl 또한 이러한 선형은 개인의 주관적 지향성을 따라 움직인다고 보았다. 이를 기독교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각이 속한 범주는 영, 혼, 육으로 확장되므로 영의 범주가 추가되면서 지각과 인식의 범위가 넓어진다. 기독교입장에서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성령은 인간에게 깨달음을 가져오게 돕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기독교인은 인식의 주체이자 객체가 된다.

이처럼 기독교상담학에서 본 심리학의 직관은 부분적이며, 작은 개념으로 이해된다. 이는 심리학의 인간이해가 기독교의 인간이해보다 작고 부분적이기 때문에 당연한 귀결이라 볼 수 있다.

2) 직관의 근원(source)

직관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가에 대해 기독교는 기존의 심리학과 다른 입장을 취한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고

관계적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이야기함으로써 (창세기 1장) 인간이 다른 존재와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여기서의 존재는 인간을 넘어서는 초월적 존재를 포함하며, 초월적 존재의 인정은 인간의 인식이나 직관이 인간의 무의식을 넘어선 외부로부터 유입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초월적 존재와 관계하는 인간은 프로이트가 주장하는 유물론적 세계관과는 달리 결정론적이지 아닌 예측할 수 없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영적인 측면, 선험적인 개념을 배제하기 보다는 선별하여 수용하려는 최근의 움직임과도 맞닿아있다.

기독교의 직관은 외부와 내부에서 모두 경험된다. 먼저, 외부로부터 경험되는 직관은 인간 자신의 것이 아닌 타자, 혹은 외부의 무엇을 통해 경험되는 직관이다. 외부로부터 인식된 직관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것, 또는 타인을 통해 갑자기 떠오른 무엇이다. Jung은 프로이트의 개인 무의식 개념과 달리 집단 무의식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특이한 심리현상이 여러 사람에게 객관적, 집단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다. Jung은 신을 심리학적 실재라 하고 존재론적 실재로서 부인했다. 그러나 기독교는 기존의 심리학과는 달리 인간을 영/혼/육의 개념을 모두 가진 전인적 존재로 이해하기 때문에 외부의 영적인 세계를 인식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외부의 영적인 존재를 의식하고 이와 소통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계시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⁷⁵⁾ 계시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현현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그분의 뜻과 그분 자신을 전달하는 의미를 갖는다.⁷⁶⁾ 즉, 초월자의 하나님이 인간이 인지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대상을 인간이 직관이나 감각을 통해 인지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기독교의 직관개념은 Freud의 통찰이나 Jung의 직관이 말하는 무의식과의 만남이라는 개념과 구별되면서 개인의 무의식, 혹은 집단

75) Karl Rahner, Conelius Ernst & Kevin Smyth, eds., *Sacramentum Mundi: An Encyclopedia of Theology*, vol. 5(London: Burns & Oates, 1970), 348-353.

76) 장옥중, “계시에 대한 올바른 이해”, 7.

무의식에서 비롯되지 않은 초월적 절대자로부터 비롯된 대상의 인식을 포함한다.

내부로부터의 경험되는 직관은 심리학의 무의식의 개념과 조금 더 연결된다. 정신분석학에서는 표면으로 떠오른 무의식적 개념을 인간이 통찰하고 그 무의식을 인식하게 되는 상태를 직관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초월적 절대자가 인간 내부에 성령이라는 형태로 거한다고 보고 영성을 가진 인간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소통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인간 내부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직관으로 받아들이는 현상은 외부의 타자로부터 비롯된 개념을 내부에서 인식하는 인간의 무의식에서 비롯된 직관과 구별된다.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범주를 인간의 내면에서 인식하게 하는 주체는 기독교의 성령이다. 즉, 성령은 초월적 대상인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하는 매개적인 존재며 인간의 내면에서 새로운 통찰을 가능하게 하는 존재이다. 이러한 직관은 기독교에서는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로 설명되기도 하며, 유물론적인 사고관에서 비롯된 기존의 정신분석적 심리학이 설명할 수 없는 직관의 영역이다. 따라서 기독교적인 직관의 영역은 기존 정신분석적 직관의 확장된 개념이라고 설명될 수 있다.

III. 닫는 글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관은 인식의 한 부분으로 직관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직관은 철학의 인식론에서 등장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특히 Kant의 인식론에서 직관은 인식을 돕는 과정 중 발생하며, 어떤 개념에 속한 직관이 인식의 과정을 돕는다. Jung의 직관은 무의식을 통한 지각 또는 인

식의 개념으로 사용되어진다. 이때 알아지는 상태를 인식으로, 알아가는 과정을 지각으로 본다면, Jung의 직관은 감각정보를 처리하는 지각에 가까운 개념이라 볼 수 있다. 한편, 기독교에서 인식은 영성으로 언급된다. 영성은 성령을 통한 초월적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소통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소통은 하나님을 인식함으로써 인간의 삶에서 보다 높고 넓은 차원의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 인간의 세계에서만 인식하고 받아들이던 사실과 정보들을 하나님의 세계로 인식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인간의 차원에서 풀리지 않았던 해답들이 이해될 수 있다. 인간의 고난에 대한 이해가 그 예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기독교 상담에서 상담자와 내담자의 영성이 중요하다.

이처럼 직관의 확장된 이해는 기독교 상담에 있어 성령의 작용으로서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이는 앞서 선행연구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기독교 상담자의 영성은 상담에서 내담자를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형상의 회복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며 자원이다.⁷⁷⁾ 따라서 기독교상담자의 영성상태의 각성과 영적 훈련이 필요하겠다.

둘째, 직관의 원천이 되는 무의식과 계시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가 가능하다. 심리학에서 직관은 무의식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지각으로 정의된다. 이때 지각하는 사람이 자신이 속한 범주를 이해하지 못하면 자신 안에 일어난 지각을 이해할 수 없다. Jung의 심리학에서 무의식은 개인, 집단의 범주로 이해되어 개인의 특수성에서 인간 전체의 창조성까지를 포함한다. 그러나 Jung의 인간에 대한 범주는 혼, 육으로 이해되므로 직관은 혼, 육의 범주에서만 이해된다. 그러나 집단무의식의 원형 안에는 인간의 에너지가 상징이나 종교성 등 외부로 향하게 하는 초월성을 내포한다. 이러한 초월성은 철학에서도 언급된다. 인간의 직관 안에는 이미

77) 안경승, “목회상담자의 영성”, 309-336; 권수영, “기독교(목회)상담에서의 영성 이해: 기능과 내용의 통합을 향하여”, 한국기독교학회,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제46권 (2006): 7-36.

경계를 벗어나는 인식이 내포되어있는데, 이는 개인이 의미를 두고 가치 있게 여기는 주관적 지향성에 따라 나타난다. 기독교에서는 이러한 지향성을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기 위한 인간의 영성으로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에게 개념, 이미지, 언어 등의 매개로 인간의 경험 안에 나타난다.

기독교 상담자의 경우 자신 안에 드는 지각을 심리학에서 언급하는 범주 외 하나님과의 연결을 통한 범주도 갖게 된다. 심리학자들의 기독교적 계시와 영성을 신비적이고 비학문적이라 비판하는데, 이는 그들에게 존재하지 않는 범주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독교적 직관이 더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으며 기존의 직관과 기독교적 직관은 그 궤를 달리한다. 기독교적 입장에서 직관은 개념이 다르므로 용어를 분리 해줘야 한다. “참 만남/깨달음 등등”으로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기독교 상담에서 직관을 심리, 사회, 영적 측면에서 확장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심리학의 인간의 이해는 부분적이며, 모순적이므로 기독교적 인간이해를 통한 직관의 이해가 필요하다. Jung의 직관의 개념도 무의식을 인식하는 현상이라고 설명하며 인간을 심리적인 존재로 보고 있다. 물론 집단무의식이라는 사회적 측면을 언급하였지만 여전히 인간의 부분적 모습만을 보고 개념을 사용한다. 이처럼 심리학에서 인간을 부분적으로 이해하는 원인은 심리학의 인간이해는 부분적이며, 모순적이고, 작은 존재이기 때문이다.⁷⁸⁾ 심리학에서 인간은 물질이라는 부분적 존재로 이해되지만 물질 안에서 정신능력의 창조는 모순을 드러낸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인간의 이해는 심리, 사회, 영적 개념을 모두 포함한다. Jung의 심리, 사회적 관점의 직관에서 기독교적 개념인 영적 개념이 필요하다. 이는 앞서 소개한 계시와 영성으로 인식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기독교에서 인간의 자기 정의는 스스로 이뤄질 수 없다. 하나님과

78) 김용태, 『슈퍼비전을 위한 상담사례보고서』(서울: 학지사, 2014), 201-204.

의 관계에서만 인간의 존재는 피조물로서 그 정의를 갖는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 내재된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하고자 하는 초월성을 실현하며 살아간다. 이처럼 기독교적 직관은 Jung의 개념에서 빠진 영적 개념을 추가한 외부의 초월적 절대자에게서부터 오는 계시의 영역과 인간의 내부에 거하는 성령으로 표현되는 초월적 존재로부터의 계시를 인식의 대상에 포함한다. 직관의 범주확장은 신비주의적이고 비논리적이라고 비판받았던 계시와 영성의 영역을 인식의 대상으로 포함시켜 상담장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초월적 절대자와의 소통을 전제로 하는 기도나 꿈을 통한 계시,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의 영적 해석 등의 영적 소스에서 비롯된 인식이 직관의 영역으로 포함되어 사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기독교 상담에서의 직관의 범주확장을 시도했으나 직관의 범주확장을 시도했던 기존 연구들이 거의 없어 직관의 세부적인 범주를 나누고 정의하는 데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많지 않다. 또한 종교적 범주확장에 있어 기독교와 타 종교 혹은 영성적 개념을 비교하여 고찰할 필요성이 있으며 추후 후속연구를 통해 기독교가 타 종교에 비해 갖게 되는 직관의 범주특성에 대해 다룰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한 기독교상담의 직관은 다음과 같이 실천적 적용이 가능하겠다.

첫째, 기독교 상담자의 열린 마음과 영성생활이 중요하다. 기독교상담자는 이론이나 자신의 틀에 억매이지 말고 마음에서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허용하고, 상담에서 적극적으로 직관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치료자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치료자의 마음은 치료에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기독교 상담자는 성경읽기, 말씀 묵상, 기도 등을 통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다.

둘째, 기독교 상담자는 상담 중에 성령의 초대를 할 수 있다. 성령은 계시를 통해서 그리고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분이다. 따라서 기독교상담자는 상담에서 묵시적 기도나 명시적 기도와 같은 방법으로 성령을 초대한 직관 및 계시를 활용할 수 있겠다.

셋째, 기독교 상담자는 내담자가 꾸는 계시적인 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혹은 상담 장면 내에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직관으로 여겨 상담실 내에서 이에 대해 다루어볼 수 있다.

【 참고문헌 】

- 강경미. “분석심리학과 기독교상담의 접목 가능성에 대한 고찰”. 한국복음주의 실천신학회. 「복음과 실천신학」 제21권(2010): 39-68.
- 권수영. “기독교(목회)상담에서의 영성 이해: 기능과 내용의 통합을 향하여”. 한국기독교학회.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제46권(2006): 7-36.
- 권수영. “영성지향성을 가진 기독교(목회)상담”. 연세대학교신과대학. 「신학논단」72집(2013): 7-36.
- 권용근. “칼융(C.G. Jung)의 정신유형론에서 본 영성유형 분석”. 「기독교교육논총」 제26권 (2011): 57-91.
- 김명용. “칼 바르트의 계시론”.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사상과 문화연구원. 「장신논단」 제25권(2006): 69-96.
- 김미경. “기독교상담자와 영성”.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1권 (2008): 165-185.
- 김상인. “기독교 상담에서의 영성”. 성결심리상담소. 「성결심리상담」 제2권 (2010): 70.
- 김성민. “C. G. 융의 상징론: 무의식과 종교상징”. 한국기독교학회.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제85권(2013): 236-261
- 김성민. 『분석심리학과 종교』. 서울: 학지사, 2014.
- 김용태. 『슈퍼비전을 위한 상담사례보고서』. 서울: 학지사, 2014.
- 김원정. “심층 심리학과 기독교 신앙”, 연세대학교신과대학. 「신학논단」 제22권(1994): 291-312.
- 김정오. 『마음의 탐구』. 서울: 시그마프레스, 2012.
- 김정택. “무의식의 창조성과 종교: 그리스도교를 중심으로”. 한국분석심리학회. 「심성연구」 제26권 1호(2011): 36-66.
- 김현숙. “계시의 개념과 기독교교육”. 연세대학교신과대학. 「신학논단」 제35권 (2004): 225-250.
- 민중서림편집국. 『민중엠펜스 국어사전』. 서울: 민중서림, 2058.
- 박노권. “기독교 영성과 융의 개성화 이론에 대한 비교 연구.” 한국신학연구소. 「신학사상」 제136권(2007): 207-231.
- 박은아. “성경적 상담에서의 성령의 역사(work) 연구”. 석사학위논문, 총신대

학교 상담대학원, 2011.

박중수. “성서적 치유와 목회 상담: 융의 분석심리학 입장에서 본 요나 이해”. 한국기독교학회.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제24권(2002): 7-12.

박형국. “계시와 현존: 계시의 매개에 대한 바르트의 변증법적 유비론”. 장로회 신학대학교 기독교사상과 문화연구원. 『장신논단』 제40권(2011): 209-232.

서울대학교 교육 연구소. 『교육학용어사전』. 서울: 하우동설, 1994.

심상영.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의 분석심리학적 의미와 무의식을 통한 ‘영혼 돌봄’”. 한국실천신학회. 『신학과 실천』 제19권 상(2009): 261-301.

안경승. “목회상담자의 영성”. 한국복음주의실천신학회. 『복음과 실천신학』 제18권(2008): 309-336

이기춘. “기독교의 영성과 상담”. 대한기독교서회. 『기독교 사상』325호(1985): 243-249.

이부영. 『분석심리학: C.G. Jung의 인간 심성론』. 서울: 일조각, 2007.

이영민. “토마스 머튼의 관상적 영성과 융의 집단무의식 비교”. 석사학위논문, 서울신학대학교 상담대학원, 2007.

이은규. “복음주의 상담을 위한 영성에 대한 고찰”.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1권(2008): 9-36.

이재현. “영성지도와 목회상담, 상담관계를 통한 영적 성숙”. 한국목회상담학회. 『목회와 상담』 제23권(2014): 144-172.

임경수. “칼 융(Carl Jung)의 개성화(Individuation)과정과 중생(Rebirth)에 대한 상담신학적 담론”. 한국기독교상담심리치료학회.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제11권(2007): 171-196.

장육중. “계시에 대한 올바른 이해: 사적 계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광주카톨릭대학교 대학원, 2010.

최민자. 『동서양 사상에 나타난 인식과 존재의 변증법』. 서울: 도서출판 모시는 사람들, 2013.

최종호. “그리스도교 신학의 ‘계시’에 대한 이해”. 대학기독교서회. 『기독교사상』 제38권 12호(1994): 84-104.

현성용 외, 『현대 심리학 이해』. 서울: 학지사, 2014.

Freud, S. “The Unconscious.”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56, no. 3(1922): 291-294.

Freud, S. *New Introductory Lectures on Psycho-Analysis*. 김숙진 역. 『새로운

- 정신분석 강의』. 서울: 문예출판사, 2004.
- Grenz, S. *Theology for the Community of God*. 신옥수 역. 『조직신학 : 하나님
의 공동체를 위한 신학』. 일산: 크리스찬다이제스트사, 2009.
- Hall, C. S. *A Primer of Freudian Psychology*. 황문수 역. 『프로이드 입문』. 서
울: 한림미디어, 1999.
- Hall, C. S. & J. Nordby. *A Primer of Jungian Psychology*. 최현 역. 『Jung 심
리학 입문』. 서울: 범우사, 1999.
- Jones, S. L. & R. E. Butman. *Modern Psychotherapies*. 이관직 역. 『『현대심
리치료와 기독교적 평가』. 서울: 대서, 2009.
- Johnson, E. L. *Psychology & Christianity: Five Views*. 김찬영 역. 『심리학과
기독교 어떤 관계인가』.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4.
- Jung, C. G. “The Concept of the Collective Unconscious.” *Collected Works* 9,
no.1 (1936): 42.
- Jung, C. G. *Psychological Typ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6).
- Jung, C. G. “The Archetypes and the Collective Unconscious.” *Princeton
University Press* no. 20(1981): 42–48.
- Kern, Iso. *Husserl und Kant*. 배의용 역. 『후설과 칸트: 칸트와 신칸트학파에
대한 후설의 태도에 관한 연구』. 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1.
- Ludwig, R. *Kant fur Anfanger-die Kritik der reinen Vernunft*. 박중목 역. 『쉽
게 읽는 순수이성비판』. 서울: 이학사, 1996.
- Moore, B. E. & B. B. Fine. *Psychoanalytic Terms and Concept*. 황익근 역.
『정신분석 용어 해설집』. 서울: 하나의학사, 1993.
- Rahner, Karl, Conelius Ernst & Kevin Smyth, Eds. *Sacramentum Mundi: An
Encyclopedia of Theology*. vol. 5. London: Burns & Oates, 1970.
- Robertson, R. Jung, Gödel, and the History of Archetypes. 이광자 역. 『Jung의
원형: 융, 괴델, 그리고 원형의 역사』. 서울: 집문당, 2012.
- Spier, J. M. *Introduction to Christian Philosophy*. 문석호 역. 『기독교철학개
론』. 일산: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11.
- Ulanov, A. & B. Ulanov. *Religion & Unconscious*. 이재훈 역. 『종교와 무의
식』.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6.

【 Abstract 】

**Study on the Expanded Understanding of Intuition
: Based on Christian Counseling Approach**

Sieun Bae & Yoon Kyung An & Yong Tae Kim

Torch Trinity Graduate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onceptual basis of intuition in order to extend the concept of intuition in Christian counseling scope. Intuition is a phenomenon which appears in the process of cognizing objects consequentially. Intuition contains diverse conceptual factors in the enlarged scope of episteme. However, intuition serves as a way to cognize the unconsciousness. Thus, it is necessary to illuminate intuition from the perspective of Christian counseling.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understanding of intuition in psychology has been limited to spontaneous thoughts or the concept of unconsciousness. Second, intuition can be presented as the process of perception in terms of philosophy, the perception of sensory information in terms of psychology, and the spirituality to recognize and understand God in terms of theology. Third, the origin of intuition can be expanded to the concept of Christian spirituality from human's unconsciousness. Finally, the necessity of clarifying the definition of intuition is presented since the definition of intuition includes psychological, social as well as spiritual concepts. Spiritual source is added to the range of intuition through the study of unconsciousness and revelation. Therefore, this study prepares grounds to expand the concept of intuition in Christianity and to integrate the concept of Christian revelation and psychological intuition.

Key words: intuition, perception, unconsciousness, revelation,
Christian spirituality